

4월 18일(목) 10:00
KEB하나 1Q Agile Lab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8기 출범식」

- 祝 辭 -

2019. 4.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1 핀테크 랩 의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1Q* Agile Lab 8기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성규 KEB하나은행장님과
하나금융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1Q : First Quality 의미, '원큐에 금융거래를 해결한다'는 표현으로 하나은행 광고 문구에서 사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산되고
빅테크가 출현하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핀테크 랩'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공간입니다.

핀테크 기업에게는 업무공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보고,
자문과 투자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2 핀테크 지원

KEB하나은행의 1Q Agile Lab은
'15.6월 개소 이래,

지금까지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60여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협업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통해
1Q Agile Lab 출신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Q Agile Lab 출신 핀테크 기업 중
빅밸류와 마인즈랩 등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고
핀다와 (주)핀테크는 혁신금융서비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빅밸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평가」 서비스
(마인즈랩) 음성봇을 통해 보험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제공
(핀다)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확인·비교」
(핀테크) 차량번호, 고객 신용정보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금융상품 조건」 산출

다음으로, 핀테크 등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한국벤처투자과 함께
1,100억원을 조성하였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5,00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계획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향후 3년간('19~22년) 200억원 규모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전문 벤처캐피탈인 '하나벤처스'를 설립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펀드를 운용하는
새로운 시도도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랩에 입주한 스타트업과 대학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학협력과 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은
1Q Agile Lab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베트남 등 해외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핀테크 기업에게
해외 인재와 금융당국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3 금융혁신 지속 추진

하나금융그룹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존의 직·간접 투자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키움뱅크의 주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 함께 금융 플랫폼 ‘핀크*’를 출시하여,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첫 번째 사례이자, 주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직접 출자한 첫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핀크 : 대출, 송금, 보험, P2P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서, 하나금융지주(51%), SK텔레콤(49%)이 합작 출자하여 설립('16.8월)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산업 투자에 대한 기존 은행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에만 안주하지 않고 사업 간 경계를 허물고,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향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예산·공간 지원,
마이데이터, 결제인프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핀테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출범한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통해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등 핀테크 전반에 걸친
200여건의 낡은 걸림돌 규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개선

(일시) '18.10.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Kick-off 회의 개최

(구성) 5개 분과로 구성 (①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②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③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④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⑤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이중 하나금융지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핀크”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핀테크 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동남아 지역 중심의 “핀테크 로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외 핀테크 기업, 금융당국,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5.23-25, DDP)를 통해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영토를 확장하는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기로 선정된 10개의 스타트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력과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오늘 참여하신 핀테크 기업들 모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거침없이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